東亞日報
夕刊
三月三十日(月)

三星堂時計

國府만相對로하든 對中政策을修正

有田大使와關東軍의懇談會

北中、西南도交涉相對로

蘇滿國境問題와

共軍의北進問題도協議

皇太子殿下 宮城還啓

國際法規가無視되면 如何한提議에도不應

獨逸國民投票後의新提案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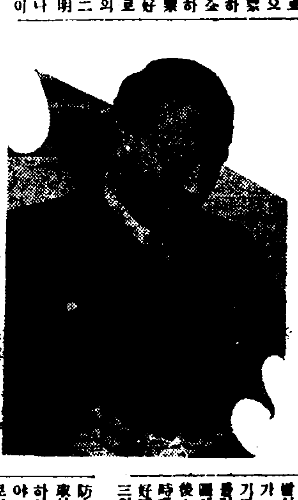
佛國플외外相의獅子吼

佛蘭西외相

長嶺子事件

現地交涉의情況

獨逸의國民投票



나치스絕對를期하야 昨日總選擧終了

總統支持投票九八·九%

强壓에不拘共產暗躍

昨今의話題

國境

다海峽의再武裝

事態重大化形勢

聯盟側의見解披瀝

政民聯繫再燃

民政黨協調的態度

鈴木總裁를 勅選議員에推薦?

其他缺員도議會前補充

橫說竪說

스에스運河地帶에 有力한英軍駐屯

알렉산드리아를英軍根據地로

英埃新協定不遠締結

新定最終結果

在日獨人四百名 나치스讚成投票

伊機三十臺 하라르爆擊

各處에火災

"首都爆擊의前兆" 하라르市空爆頻繁은

戰戰兢兢大恐懼中

有田大使新京出發

三好水白粉

現代的 優秀品
一分間美容料
누구시나 淡化粧으로第一입니다。特히 우리의살결에 곱고맞도록 맨든 水白粉입니다 그리고 近代的香氣를充分히 發散하며 美容効果滿點입니다。

三好鉛白粉 三好園白粉 三好水白粉 三好化粧水 三好固煉白粉 三好ホマー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頰紅 三好口紅 コリア石鹼 (코리아) 三一石鹼 鐵林石鹼

日鮮向 雜貨卸商 好景氣來到 新開店 絕好期來到 新開店者에게 特別大卸商報呈 滿鮮貿易商 丸一商店

內職副業總案內

1937 カレンダー 代理店募集

東洋精版印刷

社員數名招聘

努力社

月收二百圓確實 無資同樣으로되오 朝日製作所

단추

シャツ カラー

地方販賣店 販賣人急募 萬能ミシン液

安い

改正普校敎科書에 風習을 無視한 揷畵

固有의 衣服制度를 全然變作

學父兄의 非難聲漸高

이번에 개정(改正)된 보통학교 교과서(普通學校敎科書)를 특히 서방수본(書方手本)이라는 책과 중등교육수신서(中等敎育修身書)에 대하야 일반학부형과 사회인사들사이에는 그내용의 공허한것과 그림들이 일종 조선사람의 고유한 의복제도를 전연 무시한것이라 하야 불평과 비난성이 높아지고잇다한다.

그삽화를 들어보면 보통학교 서방수본의 표지(表紙)에 그린그림은 전연 그의미를 알수없이되엇고 그안에 들어가서는 조선사람들을 그려노코 의복들인것이 어느나라 사람인지 모르게한것이니 저고리의 깃과 고름이 없는것이나 (옷고름)을 제대로 매지 못하고 그리고 붙여노흔것은 조선고유의 의복제도를 전연 무시하야 혐오감을 발할수없이 일으키는것이다.

그리하야 조선의복을 전연 변작한 것으로만 보이고 조선의복인지 아니라 어느나라사람의 의복인지를 알수가없을만치한것은 차마 그대로 볼수가없을 지경이오 할뿐 아니라 종래에는 조선사람의 대서가(大書家)의 필적(筆蹟)을 너허넛든것이 이번 개정에는 전연 조선인 대가의 필씨를 구경할수 없어젓다.

여하간 교과서 중의 삽화(揷畵)가 조선사람을 모욕(侮辱)한 만화식(漫畵式)의 그림이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일러줄때에는 납세하여 견딜수가 없다는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글씨나 그림같은것은 조선사람화가의 손으로서 그려지지 아니하면 참말로 조선사람의 그림은 될수없다는것이 명백한 사실임에 불구하고 조선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아니한것이 무슨까닭인지 당국의 처사를 의심치 안을수 없다한다.

無用의 表紙畵

없어진 大家의 글씨

자녀에게 일힐수없는 붓패

市內某普校敎員 談

보통학교 서방수본에 대하야 시내 모보통학교 선생은 다음과같이 말하엿다.

一、표지에 그린그림이 무슨의미인지 전연 알수없는것이 사실이외다. 이러한 쓸데없는 그림을 하느니보다는 좀더 내용을 충실히 하엿으면 조치안흘가 생각합니다.

二、그리고 구개도 조선에는 조선사람의 대서가의 필치를 볼수잇든것이 이번에는 전연 조선사람대가의것은 구경하라야 구경할수없고 전연 일본내지인식이외다. 학부형에서 이러니 저러니 비난하는것도 무리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三、이밧게도 표지에다가 고래의 거울(鏡)과 나남(?)의 씨의 파지를 발견하엿습니다.

그러한 결점이 전번에 개정된 중등교육수신서도 역시 거울(鏡)과 나남의 씨의 파평가를 한것을 생각하고 외장한것 같으나 이것도 쓸데없는 일로 생각되는 모양이나 미리 조선에 노력할 용의주의가 잇어야 하리라고 밋습니다.

二、학부형이나 일반사회에서 이러한것들을 말할때에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삽화가 조선사람을 모욕한 만화식의 그림으로 이것을 자녀(子女)에게 일킬때에는 그야말로 창피한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사람화가가 아니면 조선사람의 그림은 그릴수없는 것이외다. 도대체 무슨 당국에서 이와같이 조치못한 그림을 교과서에 집어너흐며 출판회사를 엄중하게 감독하지 아니한는지 그는 도모지 알수없습니다.

하늘은測量 北極圈探險

蘇飛行家兩氏計劃

【모스코二十九일발전통】 유명한 소련비행가 포페피아노프, 태포프킨양씨는 무전기사(無電技師) 기공(技工) 등수명을 데리고 우수한 장비를 가진 최신식二기에 분승 二十九일 오전十시四十五분경 비행장을 출발 북극권탐험(北極圈探險)의 도에 오르게 되엿다. 일행은 아시안겔, 노부아야마라, 가게스탄드, 노부아아빠부리야등을 지나 먼저 컨페스란드에 도착, 부근일대를 측량탐험한뒤 봉소로부터 다시 북위八六도의 지점에까지 날을터이라한다. 또일행은 四, 五일분의 식량을 가지고잇다한다.

◇……따뜻한 새 노리터 찾어……

試驗地獄의 犧牲?

上級校들고지上京 落選되자 失踪

極度懊惱끝에 旅宿을나와 主人은 搜索願提出

시험지옥(試驗地獄)의 무참한 희생자이냐? 十여일전부터 부내 연건동(蓮建洞)五十一번지 김영순(金永淳)의 숙에 묵고잇는 남삼호(南三虎)(一八)라는 시골학생은 二十八일 하숙을 나간후 소식이 없어짐으로 하숙주인은 소관 종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한다.

그런데 하숙주인의 말을 드르면 그는 시골서 금년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입학시험보러 온것같엇는데 모고보교를 시험치럿으나 불행히 낙제를 하고 극도로 실망을 하든끝에 그와같이 행방불명이 되엇으므로 혹 불행한 일이나 없나하고 수색원을 제출한것이라 한다.

關釜連絡이 大混雜

하로에二千五百어명이왕래

【부산】 최근 부산잔교에는 연락선 승객의 왕래로 인하야 극도의 혼잡을 연출하야 문자그대로 피란지옥을 이루고잇다. 부산 하관사이를 왕래하는 관부연락선은 一、二、三등이 모두 초만원을 이루어 평시에 화물을 운반하던 화물선(貨物船) 신라환(新羅丸)을 임시로 운전하야 덕수, 경복, 창경(德壽, 景福, 昌慶)세 환에 二千五百명씩을 태우고 남어지 三, 四百명씩을 수송하는등 대혼잡을 연출하는데 앞으로 더욱 번잡을 예상하고 연락선 뿐아니라 철도국에서도 여객의 호수진을 출회시키고저 가진수단을 다 강구하고잇다.

春風에 迷兒

昨日曜日一日間에

鍾路署管內만 八件

따뜻한 양지쪽을 찾어다니는 어린이들! 그들은 자칫하면 길을잃고 가두에서 "엄마" "압바"를 찾고있다. 二十九일 일요일 하로동안에 부내 종로서관내에서만 길을잃은 어린이가 자그만치 八명이나되엇다 한다. 이 어린이들을 가정에서는 모으니 어린이들에게 주의할것이다.

二十九일 오후一시경 가회동(嘉會洞)二二五번지의二호 이헌구(李憲求)의 차남 김창길(金昌吉)은 재동(齋洞)네거리에서 길을잃고 울고잇는것을 종로서원이 발견보호중이며 동오후 二시경 와룡동(臥龍洞)근방에서 四세가량된 계집아이가 방황하고 잇는것을 와룡동파출소원이 발견보호중이며 동오후三시경에는 간동(諫洞)二十四번지 박관암(朴冠岩)의 장남 종철(鍾喆)(四)이가 집에서 놀다가 행방이없어젓다는것을 그부모가 종로서에 계출햇으며 오후령 시경에는 三세된 어린아이가 종로 목부앞에서 울고다니는것을 통서원이 발견보호중이다. 또 오후二시경에는 자하구 길선(貞甲山)(七)이란 아이가 와룡동(臥龍洞)에서 길을잃고 울고잇는것을 와룡동 파출소원이 발견보호중이며 오후一시경에는 四세가량된 사나이와 관수동(觀水洞) 九○번지 신덕근(申德根)의 차남 박광식(朴光植)(七)이 화신(和信)백화점앞에서 울고 다니는것을 발견보호중이며 동一시반경에는 四세가량된 어린아이가 종로一정목부근에서 방황하는것을 一정목 파출소원이 발견하야 동서에 보호중이라 한다.

虛川江發電用水利權

卅五個年으로認可

工事로水陸運不便은會社責任

廿六日附로咸南道에서

【함흥】 압록강(鴨綠江)에 합류하야 황해(黃海)로 흘러들어가는 풍산군(豊山郡)내의 허천강(虛川江) 상류 황수원강(黃水院江)을 가로막어 안산(安山) 안수(安水) 리인(里仁) 등 三개면내 산간지대에 저수(貯水)하야 단천군 대천(端川郡大川)쪽으로 역류시켜 그간의 낙차(落差)를 이용하야 二十三만여 "킬로왓트"의 수력전기를 발전케하려는 전기사업(電氣事業)이 지난五일부로 장진강수전회사(長津江水電會社)의 야구준(野口遵)씨에게 인가되엇다함은 일찍이 본보를 통하야 누차 보도된바이거니와 이 발전사업의 인가를 얻은 장진강 수전회사에서는 지난十日일로 풍산허천강 단천남대천 동지류 황수천(黃水川) 신흥천(新興川)등 각관계하천의 전용수리(專用水利) 사용허가 신청을 함남도당국에 제출하게되엇다.

그리하야 도당국에서는 그후 이에대하야 十분고려하든끝에 十三개조로된 조건부의 허가를 지난廿六일부로 동회사에 대하야 하기로 되엇다는바 그내용은 장진강수전공사당시의 장진강과 성천강(城川江) 동지류 흑림강(黑林江)의 발전용수리사용 허가당시의것과 다름이없는것으로 하천사용과 수리권의 유효기한은 허가한날부터 三十五개년으로 하엿다한다.

그리고 十三개조의 허가조건중에는 七조와九조로 하천, 도로기타 공설공용 공작물등의 효용을 방해하거나 수운(水運) 육운(陸運)에의한 목재반출에 지장이 잇게하는때에는 회사당국은 도지사의 지시에의하야 적당한방법을 강구하기로되어잇다.

取調苛酷에 怨恨 품고

現職檢事正을 狙擊

【今日解禁】 【고지(高知)발전통】 소화十년十二월二十四일 궁기(宮崎)지방재판소 검사정 고하재차랑(古賀才次郞)씨가 흉한에게 저격된 사건은 현직 검사정을 저격한 것으로 구호원에 수용중인 토오문길(土居文吉)(六十)의 피스톨 저격(狙擊)에 의한것이다.

사건을 중대시하고 신문기사게재를 금지하고 장기공소원(長崎控訴院)으로부터 고교검사가 궁기시에 출장취조중이든바 사건은 단순한 범죄으로 사법검찰부에 사원을 품은 범죄자의 소위로 하는 다른 배후관계가없음이 판명되어 三十일 기사를 해금하엿다.

事件全貌

소화十년十二월二十四일 오전十시十五분경 궁기지방재판소 검사정 고하재차랑(古賀才次郞)씨가 그전과같이 등청하려고 자기집에서 약一정떠러진 궁전정(宮田町)一정목 궁기상공회의소앞에 이르럿을때 연령六十세쯤된 一노인 부부가 서서 검사정에게 말을 걸엇으므로 검사정은 처분하엿든바 피스톨을 내어들고 검사정에게 二발을 쏘고 一발은 상공회의소의 유리창에 마저깨어진때 놀란 검사정은 스테기로 범인에게 용감히 대항하다가 등을맞고서 그직 대광여관(大廣旅館)의 집에 드러가 잇섯스나 소관경찰서에서는 부근의 중유의 의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엿는데 범인은 범행후 검찰부에 자수하엿다.

동범인은 토오문길(土居文吉)의 몽번인 부인인 동인의처 스미(すみ)의 치료명의 검사정은 공중유의사 반의 치료를 받어 상한 왼쪽빰과등에 六개소의 창과상을 받엇는데 모다 경상으로 치료결과 치료一절 六일부터 평소와같이 등청하엿다.

小作令改正以後

調停申請激增

一月末現在未決濟四百五件

大部分은作權關係

소작조정령(小作調停令)의 개정안도 지난二十五일부터 시행케되엇으나 각지에서 이러나는 소작쟁의가 격증함을 따라 소작조정령에 의한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는 날로 느러가고잇다.

더구나 춘경기를 림박하여가지고 그의 신청건수는 격증되는 경향이라한다.

지난 一월중에 각지재판소에 조정을 신청한것은 百건으로 전달에서 넘어온 미제건수三百九十건을 합하면 四百九十건에 달한다고한다.

그중에서 재판소에서 조정이 성립된것이 六건, 불성립된것이 一건, 각하(却下)된것이 一건, 취하(取下)된것이 六十九건, 그외 一건, 모두七十七건이오 그밧에 四百十三건은 결제되지못하엿다.

그리고 소작위원회에서 권고해결의 결과 성립된것이 四十八건, 불성립된것이 十건, 해결로 조정신청을 취하한것이 十二건, 모두七十건이요 결제못한것이 四百五건이엇다.

새로 신청한百건을 신청별로 보면 지주로부터 조정을 신청한것이 六건, 소작인으로부터 신청한것이 九十四건인데 그를 또다시 사건별로보면 소작지와소작료관계가 八十五건 그외 一건이엇다.

朝運詐券詐欺

事實을是認

할수없이 二萬二千원사취

審理마치고來刑은午後에

조선운송주식회사(朝鮮運送株式會社)주인으로 허위의화물인환증을 발행하야 시내각은행회사에서 七만여원을 사기한 후 그범죄사실이 봉내문서원에게 발각되자 자기몸을 예민한길로 피르는한편으로 음독자살소동까지 이르킨 이계수(李啓秀) 등 三명에 관한 유가증권위조기입, 동행사 사기배임, 업무횡령(有價證券僞造, 行使, 詐欺, 背任, 業務橫領) 사건의 공판은 三十일 오전十二시 경성지방법원 형사부법정에서 이등(伊藤)재판장주심으로 개정되엇는데 피고는

▲朝鮮運送會社主任李啓秀(三十)

▲大行精米所 吳竹京

▲農業 申龍安

과 같다. 개정벽두 재판장은 피고 이계수로부터 심리를 개시하엿는데 피고는 전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당시 피고의 환경이 어찌할수없는 가운데에서 감행한사실이라고 하엿는데 남어지 피고二명의 심리를 끝마친후 검사의 구형은 오후에 잇으리라고한다.

朔州對岸에 土兵集結

兩處襲擊코저移動

警察隊越境追擊中

삭주(朔州)대안에 토병대가 집결하엿다는 정보로 지난廿八일 삭주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四十三명이 월경하야 광주구(廣州溝)를 향하엿든바 그토병은 二파로논호어 一파는 영산천구(永山川口)에 一파 八十명은 대길구(大吉口)를 습격코저 계획을세우고 이동하고 잇는것이 판명되엇다. 이에 추격경찰대는 三대로논호어 가지고 이것을 격멸코저 추격하다가 이것을 발견한 결과 오지 방면으로 도주하엿다.

結核療養所

道醫內에增設

조선의 결핵(結核)환자를 구축하야 금년안으로 이에관한 예방협회를 설치하기로 위생당국에서 준비중이든바 그취지와 강령의 준비가 다되엇으므로 오는 七일 조선호텔에서 조선결핵예방협회(朝鮮結核豫防協會)를 창립하고 발회식을 거행키로 되엇다한다. 이협회도 각도에 지부를두어 전조선적으로 예방의 인식을 깊게하기로되엇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금년부터 각지도립의원(道立醫院)에 결핵환자 요양소(療養所)를 증설하야 五、六十명의 환자를 수용토록하기로 되엇는데 금년에는 남조선三개소도립의원에만 실시하고 그외는 연차로 증설할계획이며 비용은 국고보조가 반분이라한다.

遊廓街쏘다니는 暴力團打盡

유곽지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단수령이 체포되엇다. 부내 청엽정(靑葉町) 一정목四十九번지 최성룡(崔成龍)(三二)은 용산 미생정(彌生町)二대유곽을 무대로 하는 폭력단의 수령으로 유명한자인데 二十九일 오후九시반경에 미생정유곽인 호맹집에 이르러 무전유흥을 하고 유흥비를 요구하는 주인을 구타하는 현장을 소관 용산서원이 발견하고 체포하엿다 한다. 동서에서 취조한바에 의하면 그 부하들이 무려 수十명에 달한다는데 짙어가는 봄기운에따라 그들의 발호를 허지체할방침이라 한다.

投身刹那, 救한靑孀!

百年芳盟도一場面

病든男便버리고 또다시 再嫁

變하기쉬운女子의맘

믿지못할건 여자의마음! 은혜(恩惠)의보수(報酬)로 맺어진부부(夫婦)란 그생명도 길지못하는법인것갓다.

부내 중림동(中林洞)三三五번지 최도식(崔道植)(三三)은 재작년 三월경 한강(漢江)에 나가서 소풍할지음 부내 당주동(唐珠洞) 一六三번지 김영필(金永弼)의 장녀 김영순(金永順)(二〇)이가 한강인도교에서 투신자살을 하려는것을 발견하고 위기일발의 순간에서 그를 구조하야 진정히 위로를하므로서 자살의 심리를 곤쳐버리게하엿다 한다. 이친절한 위로에 감동을받게된 김영순은 감격한나머지 최도식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살을 폐하는데 이유를 고백하는동시에 몸을구해준 그은혜는 죽어도 잊지못하겟으므로 부부(夫婦)나 되어보자는 간청을하엿다 한다.

즉 그가 자살을 폐하게된 경로란 그는 一년전에 남편을 여인후 고독한신세를 견디다 못하야 항상 우울한가운데 그날그날을 지내든중 따뜻한 봄이 도라오자 우울한기분은 一층 심하여저서 도저히 그대로 지낼수없으므로 차라리 죽어서 일체를 잊어버리고저 한것이라는 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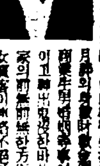
다정다감한 최도식은 이불행한 이의 하소연을 듣고 무탐없이 부부가되어버렷다한다. 그리하야 이래 三년동안 큰풍파없이 단란한 가정생활을 이어왓으나 원래 최도식의 생활은 곤난하야 다소 풍파가잇든중 최근에는 병까지 들게되엇으므로 생활방도가없어 본가로 보냇다한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엇음인지 김영순은 최근에 아름아지 나아노코는 한마디말도없이 그만 다른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고마럿다한다. 이사실을 발견한 최도식은 그의행동이 하도 괘심한지라 三十일아침 종로서에 나타나 설유원을 제출하엿다한다.

天氣豫報

高氣壓은 北中國에 一〇七五耗를 示하고 그로부터 氣壓은 朝鮮을지나 次第로 本州에 나지고잇는데 小笠原諸島附近의 海上에도 低氣壓이 좀잇다. 朝鮮, 滿洲는晴, 日本은晴, 氣溫은 昨朝부터 四度內外가낫다. 今夜는晴, 明日同, 冬節同同

昨日氣溫 最高 七度四 最低 零度一

觀相大方家



松岩先生 … 六十八年 … 觀相 … 京城府 … 五十一番地 (… 小學校前家)

淋疾 대하증 オーケーリン 京城北米倉町 靑山製藥社 振京18135

性器强大藥 早漏防止劑 麻雀寶石 … 五行公司

判任文官講義 帝都五大學敎授指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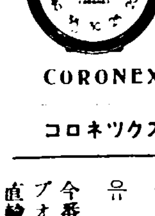
小學卒業程度 短期自宅獨學으로 一躍에 判任官다이된다

萬物躍動의 春 立志奮起의 時 正히 勉學할 絶好機!! 全獨學者는 此好機에 左記講義錄을 읽어 빛나는 官界에 躍進하시라!!

講義見本進呈 日本普文大學出版部

東亞日報購讀請求所 淸進書館 (電光 一一八三番)

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生徒募集 特典



ストップ運動用時計破格賣出! 責任保證付 クローム側無地十七型 定價 二十三圓 特價 二十四圓 今番瑞西コロネツクスストツプウォツチ專門會社로부터 大量直輸入 一千個에限特價提供함 ▼이機會에반드시▲ CORONEX コロネツクス 堅牢 正確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京城本町二丁目

Ⓗ 株式會社 平田百貨店時計部 京城本町一丁目 代表電話(2)二一二三

(地方注文은代金引換으로送付함)

ネオチリン 林 … 山本 …

本社京販 電光七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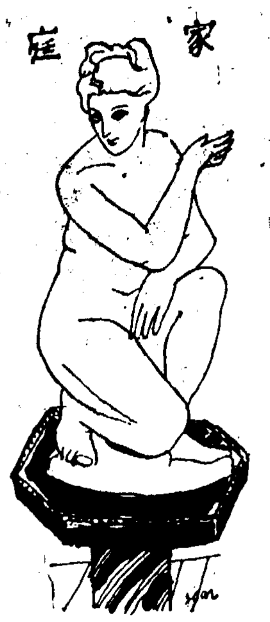
태극성광목 우리옷감

廣林商會

大谷新德商店 東京代表的各種袋物製造問屋

特許·商標 … 特許代理局

家庭



입학시험에 낙제한아이는 어떠케지도할가

준비할때보다더중대하니 너머신경질이되지마시오

입학이나두고 들어오든 입학시험지옥은 우리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엇습니다。중등학교 전문학교 심지어 보통학교 입학까지 경쟁보다 엣배나 초과를 보고잇는 것이오 二十년전에비하야 그때는 공부를 아니시킨다고 야단이엇든니 어제는 공부를 시키려해도 시길못이없고 갈못이없으니 하교에 한번 입학만되면 그런 경사는없고 그보다 더기쁨잇도 없는것같이 되엇습니다。학교를 선택할여지가없이 아모데라도 입학만되면 천행이오 다행이 되는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 해마다극재장면을 이르키어 어머니는 아들의 입학못됨을 비난하여 집을나서 자최를 감추고 아들은 입학못되어 다시는 집에들수가 없오니 이불효를 용서하소서 한마디를 남기고 표연히 자최를 감추는일 아버지는 아들이 입학못되엇다고 네가 죽던 내가 죽던 끝을내자고 비극을 이르키는등 한두가지 남이가 아닙니다。맛어야 할지한참우습에 부처야할지 감피를 알지못하겟고 제삼자가 경험이 없는이는 짜히 그쓰맛을 아지못 하지마는 직접당하고 잇는이의 심정은 붓으로 그려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실패를 하엿다고 비관만하고 웨 **「못햇느나」** 고 꾸지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것이겟습니가。

더구나 중학정도쯤부터는 자아의식(自我意識)이 강하고 감수성(感受性)이 예민한 청년기에잇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되고 면목이없이되어 돌아오게되는 이들을 맛게되는 부형들의 태도라는것은 가장 중대한 것으로 한번 그릇되게되면 자녀의 생활과 그 장내에잇어서 다시어쩔수없는 영향을 받게되는것을 아서야합니다。못된것이 뻔하니까 한바탕 전후 생각없이 야단을치고 나위에 영향이 어떠할것을 생각하서야합니다。

실패를하고 도라오는 아이가 그러지아니해도 주저하는것을 붓잡고「그러면 그러치 네까지것이 하긴 무엇을하니 하필구무엇이구 다 그만두어버려라」하고 **열등감정** 을 갓게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실패하고 오거든 될수잇는대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얻게해줄것이며「네가저렴을 다햇어도 안된것이야 어찌하겟니 얼마든지 앞으로 다른것에 착수하기로하자」하고 극히 온건한태도로 대할것입니다。「시험치르느라고 애를썻으니 무엇이나 좀해줄까」하고 음식도 좀해먹이고 가정을 재입조화 위안처로 알게하십시오。한번 야단을 만나게되면 집에잇기가 안되어으니까 밖으로 나돌며 조치못한 친구와 돌아다니게 되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잘 위로해주면 면목이 없으니까 머리를 숙으면서 점지해하나 몇날못가고 잊어버리게되고 다시 면면을위하야 노력하게됩니다。

세상의 부모들이어 너머 신경질이되지말고 침착한태도로 할것

낙담 하고 잇는 아이를 더一층 우울하게하거나 아조버린사람 취급하지 못하는것은 대금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구해서 아조문란실하고잇어도 안됩니다。

아이가 입생에처음으로 실패한데대하야 비판을 하고잇는데 부제만제하고잇어도 부모에게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어저서 장내황상에도 자미없는결과를 맺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가까운 부모가 평시에 잘알고잇는성격과 태도를 잘알어서 상태를따라 가가저당한 인도를해야합니다。

아이들의 기분이 완전히 정정해지기전에는 공부를 시키지말고 자유스런 생활을하도록하다가 정정이된뒤에 다시명예를위하야 공부하도록 할것입니다。

女性界消息

槿美會手藝講習

시내 본정(本町) 종방(鐘紡)에서는 비·스테이순안에 잇는 근미회(槿美會)에서는 四월一일부터 十五일까지 매일오후 一시부터 四시까지 수예강습(手藝講習)을 한다는데 특히 우수(優秀)되는 남만은 조선가정부인에게 필요한 사수를 가르키기로되어 조선여자기예원(朝鮮女子技藝院)의 장선희(張善禧)여사가 이를 담당하여 지도하게되엇다하며 회비는 二원이오 신청기한은 三월十九일이라 한다。

까소린·스탠드

배고픈자동차에 배불리먹여준다

◇◇…길모퉁이를오르게 형세소캐맷마일이든지 다르나든 자동차 화물차 오토빠이는 결국에잇어서 빼가곱하죽겟다는 형상을하고 까소린스탠드에 들러와서는 숨이차고 빼가곱하서 야단을하면서 배를채워달라고 애원을 하는것입니다

이까소린스탠드는 자동차의식량공급소이니 거리거리에 잇는 주막집과갈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빼여주는까소린을 받어가지고 다시원기가 회복되어다시 다름질시작을하지오。

◇◇…가늘고 긴기둥같은 데서 어디서그러케 까소린이한없이 쏟아저 나오는지오 보통기둥보다는 보기부터가 좀다른데 상반신(上半身)은 까소린계량과 다시말하면 얼마나까소린이 쏟아저나가는지를 알수잇는기계오 하반신(下半身)은 펌푸로되어잇어서 정량까소린은 땅속 석저기리속에나가 큰쇠탕크속에들어 두고 필요할때 마나 펌푸로 자내는것입니다

◇◇…탕크의크기는 장소에 딸아 다른데 이탕크에는 부속된것이만하서 탕크로 까소린보내는 긴 길이올리는길 통의여러가지가 붙어잇는데 특히 탕크속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까스를 그대로 나오시안게 되엇습니다。그리고 분량받급은 이번에는 〔?〕중량통에서 자동사로옮기어 가는것입니다。땅속에 잇는 탕크에는 탕크자동차가 부밥을 하는것입니다。

紙上病院

코물이흐릅니다

〔問〕금년 二十一세되는 여자이온데 어려서 누리뼈 아프고 볼하하여서 그때 코가 엾엇는지는 코물이 잘나옵니다。그런데 근년에와서 더 심합니다。여럼에도 찌륵 찌륵하고 코가흐하고 나만 지위지면 코물이 솔솔 자기도 모르게잘고 나옵니다。그러나 밤에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손병원에서 약을 사다 발려도 낫지를 안습니다。부스아웃써야 나흘지요 약명을가르처 주시긴지요 처방을 써주십시요。(德山 齊香生)

〔答〕만성비염(慢性鼻炎)이되면 그리될수가잇는데 그정도에 따라서는 약물치료만으로서는 효를보지못하고 결국수술의 힘을 입어서 만히 효력을보는수가만습니다。그리고 약물치료도 발는는 방법을 모르면 어렵습니다。아래에 기록한약을 솜방망이에 묻처서 깊은 곳속까지 발라보시지요。

一、五%코카인水
二、五%アドレナリン液
五%プロタルゴール液
(民衆醫院耳鼻科)

童謠 참새양주
金聖壽

지녀햇빛 번기게
부는산골에
억소흔 참새양주
마주앉어서

건너편 방아간만
바라보면서
짹짹짹 요편말로
조잘거려요

◎ ◎

「쌀찟는 아가씨들
어서가세요
집에서 애기네가
기다립니다

흐터진 쌀알일랑
그냥두시고
짹짹짹 해지기전
어서가세요。」

가리레오·가리레이 科學文明의선조 (下篇)
李東民

피사대학에서 쫏겨나다싶이한 가리레오는 얼마뒤에 파두아대학 수학교수(數學敎授)가되엇읍니다 십팔년동안이나 그곳의 젊은학생들은 지도하엿읍니다 선생의높은 이름을 듣고 젊은학생들은 모여들엇습니다 구라파(歐羅巴) 각지에서학생들은 몰려드럿읍니다 이천명이나 드러갈수잇는 뾸고뾸은 강당(講堂)이은 꽉찻습니다。

바로 그때엿읍니다。화란(和蘭)에서 안경장사하는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렌스」를가지고 놀다가

「이상하다 「렌스」를서로뽈비처보면 커다라미같이보인다 웨일일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생각해보앗습니다。그러나 아모리 생각하여도 알길이 없엇습니다

가리레오는 이말을듣고 끝없이 기뻐하엿읍니다。그리고 침식을 잊다십이 그이치를 연구한 결과 드는 三十배나 크게볼수잇는망원경(望遠鏡)을 발명하엿읍니다。

가리레오는 이망원경을 가지고 여러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엿읍니다。

十二年마름 태양(太陽)은 한바퀴식도든 목성(木星)과 아름다운 테(輪)를 둘르고 잇는 토성(土星)도 발견하엿읍니다。

숙자는 책을 읽다가 아저씨게로 뛰어갓읍니다。알아뫼어도 무스할인지 물랏읍니다。

·아저씨! 토성의 테란 무엇이야요?·

·그테란것은 비상히 적은 운석(隕石)이다。각각금 지구에 떠러지는그것이다。그운석이 만이 모여서 토성(土星)의 주위를 도라다닌다。그것이 태양의 빛을 반사(反射)하고잇기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테를 둘른거같이 보인단다。·

·그리고 태양의 흑점(黑點)과 달의 분화산(噴火山)을 발견하엿다고하는데 태양의 흑점은 또무엇입니까?·

·태양에 흑점은 망원경이 아니라도 볼수잇단다。불로 유리에다가 몬지를 바르고 태양을 보아도 흑점은 보인다。예날에는 태양에 새밥탈린 까마귀가 잇다고 하엿는데 아하, 흑점을 보고 한말인것이더라。지구에서 보면 아조 적은것이 라도 사실은 퍽크단 큰것은 지구의 몇十배나 된다고 한다。·

·아저씨! 태양에 흑점이 나오는 해는 덥다니 왜그런가요?·

·그것은 흑점의 갓에서 비상히 강한 열(熱)과 빗(光)을 내보내기때문이란다。·

·달세계에는 토기가 떡방아를 찟는다지요?·

·아니다! 망원경으로보면 밝은곳은 산이고 어두운 산골짜기 들이란다。화산(火山)이 만코 그중에는 직경(直徑)六十四 미일이나되는 분화구(噴火口)가 잇단다。·

숙자는 또 책을 읽기 시작하엿습니다。

·가리레오는 지동설(地動說)을주장하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四〇〇년전에 「코페르니카스」라는 학자가 이 학설(學說)을 주장하엿으나 아깝게도 이 학설은 죽어버렷습니다。족 신(神)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로-마 법황(法王)은、노하야 그를 감옥에 가두엇습니다。그는 감옥에서 비참한 죽검을 하엿습니다。

가리레오도 로-마 법황의 노염을 사서, 또한 불리엇습니다。때마침, 가리레오는, 병중이어서 연기를 말하엿으나, 그여히 그는 가마를타고, 로-마 종교재판소(宗敎裁判所)에 나왓습니다。

「그대는, 지동설을 말하나, 그런리가 만무하다。이단자다。」 그런 허황한말을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엿습니다。

가리레오는、그다음해에、 장님이되엿습니다。그러나 그는、천문학(天文學)과 물리학(物理學)을 연구하엿습니다。一千六百四十二年 一月八日에「가리레오」는 七十四세로 목숨을 마첫습니다。

이상스럽게도 그해에、뉴-톤은, 가리레오의 뒤를 잇고자 나엇습니다。

숙자는 책을 다읽고나서 가리레오의 사진을 무그러이 드려다 보앗습니다。한참동안이나 아모 말도없이— 해는 서쪽 상공을 환하게 비처 드러왓습니다。(끝)

똘똘이

李無影 作 鄭玄雄 畵

(四一) 빗을갑고 (2)

수동이는 김상사 하는것을 맛엇습니다。순해를 보면 자동차 값도 못갑고 일판 애써서 모은돈을 죽다 까바리까바 걸도나고 또 노따한데 들기만 어찌나 하는 생각도 나서 그러것입니다。그런까닭인 똘똘이는 시골떠기라 그래 …」

「에이까 멍텅구리! 너 시골떠기라 그래…」

하고 아주 저는 서울사람이나 되는듯 처럼 뻐냇습니다。

「이것아。내가 시골떠기면 너 촌뜨기다…」

하고 수동이도 우섯습니다。

「이것아 시골 내민 못써 낫에는 기우파리 다니면서 그놈의 집을 살피보고 밤에는 …서 탐을 싸주면서 어쨋던지 복순이하구 필순이를 보구 뭐버야지。」

그러니까 필순 아버지로

「어디 네 재주껏해서 우리 필순이나 좀 찾어다우。」

하고 일어낫습니다。

그래서 똘똘이는 워서 그남은 사탕회사로 가서 석탄을 싸 주엇습니다。

「애 인저 삼십전만 더 벌면 자동차값이 되는구나!」

「만세!」

「애 어쨋던 오늘 삼십전은 벌어야겟다。」

이러케 이야기 하는것을 들은 마차꾼은 남산 밑에 석탄을 가지고 가다가 삼판통 술집앞에다 마차를 세워노코

「애들아。너의가 자동차값을 못 갚어서 애를 쓰니 내가 갚게 해줄테니 아무데 가시든지 이번만은 맡어라!」

하고 꼬입니다。

그래 무슨 소리가 하고 보러니까 석탄심에서 석탄을 인개씩 끄내서 술집 여편네를 주고 술을 먹더니 삼십전을 주면서

「인、스물 하구 세다가 대번에 마흔、예순!

이러케 속여야한다。」

하고 주장질을 합니다。이말을 듣고야 똘똘이는

「우리 그런짓을 안해요!」

하고 돈을 팽개첫습니다。

라디오 JODK

三月三十日(月)

▼六時 童話「기념비」 崔仁化
▼六時二十五分 經濟解說 徐春
▼七時三十分 講演「生活의科學化」 李萬珪
▼八時 빠이올린獨奏

三月卅一日(火)

▼午後零時五分(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三時十五分 通俗家事講座(八)
▼五時 梨花女專合格者發表
▼六時 라디오少女小說「先生님도우시엇다」 李南洪 作 京城어린이放送會
▼六時二十五分 經濟解說 尹乙洙
▼七時三十分 講演「어떤方法으로 事物을求할까」

第一放送

▼八時三十分 伽倻琴倂唱 金■玉 李興烈
▼九時 古歌「八王寺」 朴寅成
▲午後六時 ピアノ獨奏 社中▲六時二十分(東)コドモの新聞▲六時二十五分科學趣味講座 化學の驚異▲六時五十五分(東)カレントトピックス▲七時三十分(仙)趣味講演▲八時ヴァイオリン獨奏▲八時五十分(東)ラヂオドラマ演劇連夜三題第二夜 新東京見物

▼八時 平壤歌外 (一)博物打鈴(三)開城난봉가
▼八時三十分 映畫이야기
▼九時 歌詞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東)朝の修養▲九時(東)衛生メモ ▲十時三十分(東)家庭講座▲午後零時五分(東)管絃樂▲二時(東)婦人の時間▲三時十五分通俗家事講座▲六時(大)音樂物語▲六時二十五分講演▲六時五十五分(東)カレントトピックス▲七時三十分(大)講演 科學界のトピック▲八時地頭▲八時三十分(東)演藝

白蓮流轉記 (32)
尹白南 作 李齊田 畵

二、캄캄한길 (十七)

영백은 백련에게 자기의 양친이 혼처를구하고 있는중이란 말을 차마 노골히 하지 못하엿다。

그러지 아니해도 마음의 상처가 아직 완구히 회복되지 못햇슴 그에게 또 새로운 타격과 초조를 주기가 안타까웟다。

그래서 그는 후일에 다시 만나자세한 의논을 할생각을 먹고그날은 피차의 마음이 변치않을것만으로 만족하고 그의몸이 순결한대로 살어나온것만을 축복하고 헤어지엇다。

헤어질때 백련은 영백의 손을잡고는 여간만족해하지안헛다。

이주일동안 캄캄한 길을 걷고잇던 백련이 명랑한 밝은 천지로 나선것한 느낌과 큰짐을 벗은듯한 시원함을 느끼엇다고는햇던

이나 되누리하야 말하고 말하는 것이엇다。

영백은 거북이 선보는것은 걸리엇다 백련의 순결을 믿게된이상 어려운게 무엇이며 두러울게무엇이라

가기를 주장한다면은 아모라 엄복송을 내노코 백련에게로 장한 아버지를 설마시기더러 죽으라고야하리 더구나 백련이가 기생이라면모르거니와 현재는 뚜렷한 처녀가 아니냐

영백은 오늘밤에는 꼭 어머니께 내 심중을 토설하야 간곡히 청해보리라는 결심을하고 집으로 돌아서자 마루에 앉아잇던 어머니가

「너 어디갓다가 인제오니 어서 이리올라오너라」

하고 펑으나 고대하고잇엇든듯이 벌떡이러나서 앞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농에서 새옷을 끄내어놋는다。

「어서 이걸 가라입고 사랑에나 가바라」

「왜요」

「글세 어서 갈아입기나해」

「옷이 아족 말정헌데 왜 갈아입어요」

「사랑에 손님이 오서서 널 보시잔단다 그꼴을 해가지고 누굴뵈니 어서 어머니 욕 먹이지 말구 갈아입구 나가요」

「누군가」

「누군 알어 접해 허라는대로나 허지」

그러나 영백은 어머니의 말을 치로 자기의 선을 보러온 사람이라는것을 얼핏 깨달앗다。

「선 보러 왓구려」

「대가리가 커가니까 눈치만 남엇구나 선은 무슨 닷다가 선야」

「그러지마슈 선보러왓다면 어멋소 부어 부끄러워 헐줄아슈 백번이라두 보라지」

「아닌게 아니라 널솜 보겟다구 와단다」

「어떤집이람닛가」

「수구리에서 큰 곡청장사를 허느집이란다」

「흥」

하고 영백은 코 웃음을 처보이엇다。

「애 곡청장사라니까 지체가 남분줄 아니」

「지체야 무슨 우리집인듬 정승깨나 해본집인줄 아슈」

「그러니까 말이지」

「그만 두서요」

「무어? 그만두다니」

「어느 미친놈이 제 얼굴 보라구선 보일놈이 어디잇소」

「저애좀 보아 아버지헌테 꾸중뭇기전에 어서나가보아라」

「난 장가두 가기실혀요」

하고 영백은 앞에노인 새옷을 어머니 앞으로 내민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매매히 아들의얼굴을 바라다 본다。

이십이 머지안은 오늘까지 영백이가 이러한 태도를 부모앞에서 보인적이없다 얌전하고 똑똑하고 순하기로 남에게까지 칭찬받든 영백이엇다 부모가 어굴한 꾸지람을 하야도 그당장에는 말대답을 아니하는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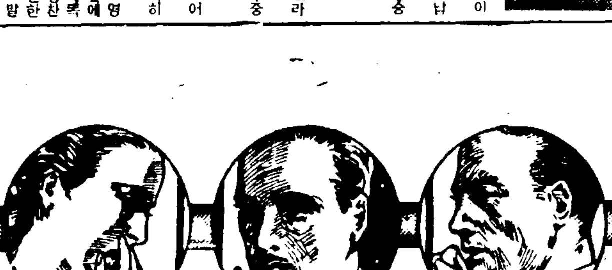
그것이 오늘이 어머니는 하도어이가 없어 아들영백의얼굴을 뚫어질듯 드러다본다。

영백은 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하야 피하면서

「장가는 아답에 들어요 난」

하고 내뱉듯이 말을하다。

登錄商標



世界어느곳에서도잘팔이는龍角散！

용각산 龍角散

主効
喘息、百日咳
感氣기침、呼吸困難
氣管支가다루、嗄聲
咽喉炎、肺病기침
血痰、홍역기침

定價 二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大十五日分 三圓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東京市神田區鍛冶町

천식 담기침

流感기침·喘息
百日咳·목쉰데

治病과 美聲도

龍角散이 世界的으로 著名한것은 東洋의藥界에서 위해서 다가치 경하할바입니다 龍角散은 咳、기침에는 물론이고 아모리 중환이된 천식이나 매일복용하라는

今日의 經濟話題
프랑貨不安濃厚

[illegible]

商業組合令實施앞두고
注目되는 實施後의 効果
"統制强化만은不可"
▽……日本內地의 先例가 證明

[illegible]

三陟二會社의 東拓參加遲延

[illegible]

朝鮮米運賃 協定復活決定
朝鮮荷主再轉向

[illegible]

東洋汽船加入으로 今後混亂難免

[illegible]

今年春繭掃立—
七十萬枚超過豫想

[illegible]

銀行時間變更
四月부터午前九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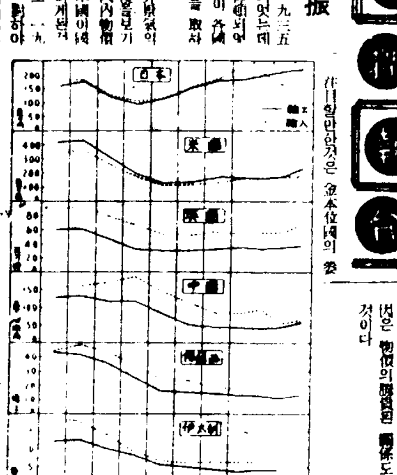
[illegible]

까솔린價引上
石聯創立으로實現

[illegible]

國際貿易不振

[illegible]



北中密輸取締

[illegible]

移出白米振興 期成會를結成

[illegible]

鐵道局線의 貨物輸送計劃

[illegible]

漁業金融의 合理化企圖

[illegible]

今日의市況
三月三十日

株式	正米
期米	商品
正租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後場 再弛
前場昂騰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後場頭重

[illegible]

戾新高價 東新七圓臺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押目買狙如何
深押은없을까?

[illegible]

大阪四市場後場休會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高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期米 當限平凡 納會
前場强調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三月三十日)

海外金銀 / 東京金銀 / 京城金銀

[illegible]

分岐는來月에

[illegible]

當限平凡納會

[illegible]

後場伸悩

[illegible]

仁川當限受渡

[illegible]

米豆餘墨

[illegible]

各地當限受渡高

[illegible]

大邱不變 / 釜山低落 / 群山同調

[illegible]

各地商況 正米
京城小低 / 仁川小甘 / 木浦小堅

[illegible]

各限條合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金融 / 商品

[illegible]

株式 / 期米 / 正米 / 雜穀

[illegible]

土金 ㊗ 金石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鑛·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ClibPDF - www.fastio.com